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백)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박진희 레지나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백)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 23. 11. 26. )

\* 오늘 전례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임금)이심을 기리는 날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셨고,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높아지셨다. 1925년 비오 11세 교황이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정하였다. 한국 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해마다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신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고 자주 읽으며 묵상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 제1독서( 예제키엘 예언서 34,11-12.15-17 ):

11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피 주겠다.  
12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 떼 가운데에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 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 떼를 구해 내겠다.  
15 내가 몸소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16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 떼를 먹이겠다.  
17 너희 나의 양 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5,20-26.28 ):

형제 여러분,  
20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21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23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24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25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26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28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 복음( 마태복음 25,31-46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1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33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 36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37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38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듯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39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40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41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2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43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44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45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46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 미사 전례

####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님, 연중 시기 마지막 구간을 맞이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절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진정한 봉사의 정신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3.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과 외로움으로 힘들게 지내는 노인들을 살피시어, 그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가족과 이웃의 보살핌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4.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 이름으로 모인 본당의 단체들을 굽어살피시어, 자신들의 활동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파됨을 깨닫고, 서로 화목하며 기쁨 가득히 살아가게 하소서.

#### ♪ 성가 ♪

입당 : 75 (주 그리스도 우리 왕)

봉헌 : 220 (생활한 제물)

성체 : 174 (사랑의 신비), 180 (주님의 작은 그릇)

파견 : 73 (만민의 왕 그리스도)

### 공지 사항

#### ♣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 금일(26일) 미사 후, 사제관

#### ♣ 모임/회의

- 2구역 모임 : 금일(26일) 미사 후, 성당 지하 (말씀 나눔 및 구역회의)

#### ♣ 봉사자

	오늘 주일( 26일)	다음 주일( 3일)
제1독서	엄기용 안토니오	강한 프란체스코
제2독서	장세란 세실리아	박수정 클라라
복사	엄채운 엘리사벳 김사빈 엠마	강윤이 스텔라 박동현 요한보스코
계단·화장실	엄기용 안토니오	강한 프란체스코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57.50 • 교무금 € 940.00

♣ 교무금 : 구약(舊約)의 십일조(十一條)에서 유래하는데, 신자들이 한 달 수입의 일부를 교회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매월 봉헌하는 것으로서 주일 헌금과 함께 본당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책정하신 교무금을 올 해 안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